

---

# 〈만복사저포기〉와 〈봄밤〉, 비추어 읽는 사랑의 서사

조혜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목 차〉

- I. 서론
- II. 〈만복사저포기〉: 현대의 시점에서 거슬러 읽기
- III. 〈봄밤〉: 애정전기 장르 관습에 비춰 읽기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5세기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와 21세기 권여선의 〈봄밤〉을 서로 대비적으로 읽어서 두 작품에서 그리는 사랑의 성격을 살펴 보았다. 또 필요한 경우 영화 〈봄밤〉도 참조하였다. 두 작품의 사랑 이야기는 두 남녀의 현재에 충실한 적극적인 사랑 이야기이며, 서로에게 충분히 충족적이고 고양된 상태로 결속된 남녀의 이야기이다.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이 교묘하게 닮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두 작품에서 그리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서로 통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작품을 대비해서 읽을 때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는 〈만복사저포기〉의 서사가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의 사랑 이야기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키워드 : 〈만복사저포기〉, 소설 〈봄밤〉, 영화 〈봄밤〉, 타자, 소외, 사랑, 죽음, 귀신, 매체

## 1. 서론

〈만복사저포기〉는 『금오신화』 맨 처음에 자리하고 있는 애정전기 작품으로, 남성 주인공 양생은 가난하고 외로운 서생으로 등장한다. 한문 교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서생으로 보이는 양생은 신분상으로는 양반에 속할 것 같은데 과거 시험이나 입신출세에 대한 포부는 언급되지 않은 채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 서술되어 있다. 자신을 거두어 줄 다른 친척도 없이 만복사 동쪽에서 홀로 기거하는 양생은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서생이라는 점에서 불우<sup>1)</sup>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 역시 불우하다. 이런 양생에게 중매를 통한 혼인이나 연애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기에 양생은 불우에 외로움을 더한 인물로 등장한다. 〈만복사저포기〉는 양생의 가난과 외로움을 토대로 시작하는 애정전기 작품이다.

애정전기이니 사랑 이야기인데 〈만복사저포기〉의 기존 논의를 보면, 초기 연구부터 대부분 사회와 삶과 존재 등에 대한 김시습의 생각을 고찰하고자 했으며, 불합리한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긍정, 애정 서사를 빌려 세종 임금에 대한 김시습의 절의를 나타낸 것 등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sup>2)</sup>, 인귀교환, 삼입시, 환상계, 비극성, 운명 등 형식이나 제재 차원의 논의들이 보고되어 있다.<sup>3)</sup> 그런데 〈만복사저포기〉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볼 수 있겠다. 그 하나는 인간과 귀신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읽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 이야기이기는 한데 사랑에 대해 양생이 보여주는 태도에 주목하여 세종, 단종에 대한 김시습의 절의와 신의가 사랑 이야기에 투사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만복사저포기〉만이 아니라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개의 작품 역시 작가인 김시습과 관련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

1) 이때의 ‘불우’는 전기소설을 세상에서 쓰이지 못한 불우(不遇)한 문사의 장르로 설명한 기존 논의에서 비롯한 것이다. 박희병 (1997),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참조.

2) 안창수(2015),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와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71, 118~119쪽.

3) 강혜진(2020), 「저포가 ‘만든’ 불완전한 운명」, 『우리문학연구』, 66, 8쪽.

하곤 한다. 『금오신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보면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나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연관 지으며 해석하는 경우가 더 익숙하다. 물론 역사 연구나 작가 연구가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되는 배경 연구임에는 분명하다.

본고는 연구의 방향을 조금 달리하여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와 권여선의 〈봄밤〉<sup>4)</sup>과의 상호 대비적인 읽기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타자들의 막다른 사랑을 그린 21세기 〈봄밤〉의 서사는 묘하게도 인귀교환(人鬼交驩)을 모티프로 하는 15세기 〈만복사저포기〉의 사랑 이야기를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어, 서로 비추어 읽을 때 두 작품에서 다루는 사랑 이야기에 대한 이해 역시 보다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읽기를 통한 본고의 궁극적인 관심은 〈만복사저포기〉에 놓일 것이다.

소설 〈봄밤〉은 매체를 다양화하여 2025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상영되었다.<sup>5)</sup> 그러므로 〈만복사저포기〉의 애정 서사를 권여선 소설과 대비할 때 본고는 영화 〈봄밤〉의 전개도 참조하여 그 사랑의 성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오백 여년도 더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는 두 작품은 장르 관습이 다르지만 두 작품에서 다루는 사랑 이야기는 서로 겹쳐지면서 시대를 격한 읽기를 시도하게 한다. 그러하기에 본고는 서사를 분석할 때 〈만복사저포기〉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읽고, 〈봄밤〉은 애정전기의 장르 관습을 빌어 읽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의 속성을 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가 선택한 〈만복사저포기〉 텍스트는 윤춘년이 간행한 조선 목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금오신화』<sup>6)</sup>에 수록된 것이며, 〈봄밤〉의 텍스트는 단편소설집 『안녕, 주정뱅이』<sup>7)</sup>에 수록된 것이다.

4)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 머물렀을 무렵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므로 〈만복사저포기〉의 창작 연대 역시 1470년 무렵이 하한선일 것이며, 〈봄밤〉은 2013년 『문학과 사회』 여름호에 발표된 권여선의 단편소설이다.

5) 영화 〈봄밤〉(감독 강미자, 주연 한예리, 김설진)은 2025년 7월 9일에 개봉되었다.

6) 김시습 (2012), 「만복사저포기」, 김경미(역), 『금오신화』, 펭귄클래식 코리아, 7~27쪽.

7) 권여선 (2017), 「봄밤」, 『안녕, 주정뱅이』, 창비, 7~39쪽.

## II. <만복사저포기>: 현대의 시점에서 거슬러 읽기

### 1. 등장인물

#### 1) 남녀 주인공

『금오신화』 소재 다른 작품의 남성 주인공들은 모두 한문 교양을 갖춘 지식인으로 등장하는데 세상에서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우울하고 우울한 정조를 지니고 있거나<sup>8)</sup> 혹은 벼슬길에 막 들어서는데 성공했으나 입신출세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켜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선택<sup>9)</sup>하고 있다. 그들에게서는 정서적 손상이 감지된다. 이에 비해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가난하고 외로운 서생임에는 분명하나 과거 합격이나 벼슬이 주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우울함에 대한 언급은 서술되지 않는다. 양생이 내비치는 외로움을 불우한 문사의 고독감<sup>10)</sup>이라고 하기에는 문사로서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서술이 빈약하다. 그에게서는 오히려 이성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작품 도입부에서 그가 읊조린 시의 내용은 홀로 지내고 있는 청춘의 외로움이다. 이성에 대한 희구는 간절했으나 현실적인 모색이 불가능했던 처지의 남자 주인공은 부처에게 저포 내기를 제안한다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sup>11)</sup>

<만복사저포기>의 여성 주인공인 그녀[厥女] 역시 이성과의 만남을 갈

8) <남염부주지>의 박생, <취유부벽정기>의 홍생, <용궁부연록>의 한생이 이에 속한다. 박생은 비판적 지식인인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채 평소 우울함을 품고 있었고, 홍생은 글을 잘하고 우아한 성품을 지녔지만 입신출세와는 거리가 먼 채 동료들과도 나눌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지닌 인물이며, <용궁부연록>의 한생 역시 어려서부터 문장을 잘하여 조정예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나 작품을 보면 그가 벼슬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스스로 세상과의 격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9)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과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여 관리가 되었으나 귀신이 되어 돌아온 부인과 재회한 후 벼슬은 물론 인간사도 멀리하다가 죽음에 이른다.

10) 이때의 불우한 문사의 고독감은 각주 1) 참고.

11) 양생이 이 같은 생각은 그가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시로 읊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좋은 짝을 구하고 싶은가 본데 어찌 구하지 못할까 근심하는가?’)에 응한 것이라 하겠다. 양생이 유교 지식인이지만 불교 신앙을 지닌 인물이라면 이런 제안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순전한 신앙의 자세로 간주될 수 있겠고, 만약 진지한 발원이 아니라 해도 종교적 요소를 갖춘 양생의 이 같은 행동은 부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망한다는 점에서는 남성 주인공과 동일하다.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이 현저히 다른 점은 남자는 인간이고 그녀는 귀신이라는 사실이다. 인간과 귀신은 속한 세계가 다르다. 조선시대 유교 지식인인 서생(書生)이라면 귀신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그 음기를 분별하여 멀리하려 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는 미처 그녀가 귀신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녀는 좋은 집안의 딸이었는데 왜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적에게 저항하다가 죽어 된 귀신이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대로 정절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학습한 것을 내면화하고 실천했지만 그 대가는 예상 밖의 결과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해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이승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단지 ‘한숨 쉬고 탄식하거나 자신의 박명함에 대해 부르짖으며 흐느껴 울’<sup>12)</sup> 뿐인 그녀에게서는 한의 정서가 감지된다.

결혼하지 못한 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죽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결핍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승에서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조차 없는 단지 뭉친 기운일 뿐이다. 이런 상태의 지속은 그녀를 한 맺힌 처녀 귀신으로, 원귀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런 그녀의 서사가 호러가 아닌 로맨스가 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소망을 부처를 통해 매개하는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선택은 초월적 존재에게 의뢰하는 것, 부처를 향한 호소였다. 아직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그녀는 한숨과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부처 앞에 나아와 자신의 상황을 적은 글을 바쳤다.

〈만복사저포기〉의 두 남녀 주인공은 가진 것 없는 지식인 청년과 목숨조차 지니지 못한 그녀이다. 부모도, 친척과의 연결망도 보이지 않는 남자는 과거 응시조차 어려워 보인다. 양반 남성으로 살아갈 방도가 묘연한 채 만복사 동쪽의 한 처소에서 홀로 기거하는 남자는 당대의 사회적 타자

12) 〈만복사저포기〉, 9~10쪽.

에 다름 아니다. 귀신인 그녀는 존재 자체가 비가시화된 타자이다. 관참은 집안의 소저라는 정체성은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의 허상이다. <만복사저포기>의 두 남녀 주인공은 서로에게 결핍과 소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등장한다.

## 2) 주변 인물

<만복사저포기>의 서사는 남자와 그녀 중심으로 전개되며 주변 인물들의 등장은 소략하다. 귀신인 그녀의 시비(侍婢), 남자가 그녀의 거처인 개녕동으로 갈 때 길에서 마주치는 지나가는 사람, 그녀를 제대로 장례 지내주기 위해 등장하는 그녀의 부모와 종 등은 일회적 등장에만 그칠 뿐이다. 그런데 같은 일회적 등장이라 해도 개녕동에서 만나게 되는 그녀 지인들의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남자가 그녀를 따라 찾아간 개녕동은 ‘쑥대가 하늘을 뒤덮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찌르는 곳’으로, 그곳에 작지만 몹시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었다.<sup>13)</sup>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자리한,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그녀의 집은 실은 그녀의 무덤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피난의 와중에 딸의 시신을 그곳에 가매장하고 떠났다. 그곳에서 왕래하며 지낸다는 그녀의 지인 네 명도 그녀와 같은 처지의 귀신들이었다. 그녀들도 모두 지체 높은 집안의 딸들이었는데 시신으로 이곳에 방치되었거나 가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와 친지들의 개녕동은 역시 무덤이었다. 네 명의 여성들은 대화도 나누고 시도 주고받으며 마음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 소리는 개녕동 너머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녀의 친지들 역시 비가시화된 존재로, 세상과 격리된 공간에서 격절한 외로움 속에 잠긴 인물들이다.

## 2. 애정의 전개

<만복사저포기>의 사건은 남자 주인공과 그녀의 조우, 그리고 애정의 전개이다. 남자는 자신이 저포 내기에서 이긴 후 탁자 밑에 숨어서 내기

13) 개녕동 처소에 대한 묘사는 <만복사저포기>, 14쪽.

에 진 부처가 소개해 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부처 앞에 글을 바치는 그녀의 자태와 얼굴을 엿보고는 기쁜 나머지 갑자기 뛰어나와서 방금 글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후 그녀와의 대화에서 남자는 주로 머뭇거리거나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의 감정을 쌓아가는 장면에서이다.

여자는 글 쓴 종이를 던지고 나서 몇 번이나 소리 내어 흐느꼈다. 양생이 틈 사이로 그 자태와 얼굴을 보고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뛰어나와 말했다.

“방금 던진 글은 무엇 때문이요?”

여자의 글을 보고 양생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러고는 묻기를, “그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혼자 여기에 왔소?”

하니 여자가 대답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의아해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될 뿐 이름을 물을 필요도 없을 텐데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시다니요.”<sup>14)</sup>

위 예문은 남자와 그녀가 나누는 첫 대화이다. 남자는 그녀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혼자 여기에 왔는지’를 묻는다.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저도 사람입니다’<sup>15)</sup>로 시작한다. 이름을 물었는데 대답 자기도 사람이라니 이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더군다나 한문을 자재롭게 구사하는 그녀가 서민 처자로 보이지는 않았을 터이니 어떻게 여자 혼자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묻는 것은 유교 사회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는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 사람끼리 만나면 그것으로 되지 않았느냐는 식의 당황스러울 법한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화는 여기에서 그친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를 절의 행랑 끝 좁은 나무판자 방으로 데려가 관계를 맺는다. 그녀는 ‘어려워하는 기색

14) 〈만복사저포기〉, 10쪽.

15) 〈만복사저포기〉, 10쪽.

없이' 따라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사람과 똑같았다'고 서술된다.

이후 그녀는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와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으니 백년해로하겠다'고 하며,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시집가는 것이 예법에 맞지는 않지만 이 또한 기이한 만남'이라며 여종을 시켜 정원에 자리를 마련하게 했다. 남자가 보니 차려진 술과 마실 것이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심스럽고 의아했다. 그러나 그의 판단력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흔들리면서 그녀를 일탈을 감행한 귀한 집 처자라고 결론지어 버린다.

판단을 유보했지만 의아한 장면은 또 이어진다. 남자는 평생 아내가 되겠다는 그녀에 이끌려 그녀의 처소로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오는 것은 모른 채 그만 보인다는 듯 그에게만 아침 일찍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장면에서도 남자는 충분히 의아할 만했지만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웠다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길이라며 거짓말로 둘러댔다. 남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한 그녀의 존재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개녕동 그녀의 처소에서 사흘을 보낸 남자는 '이곳이 인간 세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정한다. 사랑에 빠진 상태를 유지하기 바라는 그에게 그녀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그녀의 상태를 문제삼지 않은 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귀신 그녀를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 3. 결말

남자가 질문 않고 귀신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서 그의 기대대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꿈 같은 사흘 후 그녀는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년과도 같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별을 예고한다. 남자는 이번에는 질문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는 것인가

를 물었으나 그녀는 그 대답은 않은 채 이것도 인연이니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남자는 자신의 질문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으며, 자기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냐는 그녀의 제안도 선뜻 수용한다. 게다가 개녕동 친구들과의 자리가 파한 후 은 주발 하나를 주면서 만약 자신을 잊지 않는다면 내일 길에서 자신의 부모를 기다려 달라는 그녀의 제안도 별말없이 수용한다. 이 대목까지도 그가 슬퍼하는 모습이 서술되지 않은 것은 아마 그가 그때까지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sup>16)</sup>

그러나 둘의 만남이 부부 인연이라 했어도 여자의 죽음은 기지의 사실이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그녀의 혼이 떠난 후 남자는 그녀가 귀신이었음을 인지하며 슬퍼 울게 된다. 현실을 인식한 그는 그녀의 개녕동 무덤을 찾아가 통곡하며 애도한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녀 부모에게서 받은 집과 밭을 모두 팔아 사흘간 천도제를 지내준다. 계산 없는 사랑으로 그는 그녀의 소멸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공중에서 ‘당신의 천도제에 힘입어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었다’면서 감사를 전한다. 딱히 환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기보다는 여태 이승에 머물렀던 죽은 넋이 정토와 같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한 천도제를 지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환생한다고 하면 최소한 여

16) 〈이생규장전〉 경우, 귀신이 된 최씨와 다시 만나게 된 이생의 태도 변화는 그가 그 관계의 유한성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개녕동 이별 잔치 장면에서 그녀가 이별을 암시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굳건하게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는 내용의 시로 화답하였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우울함 같은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양생은 현 상황을 전연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답한 것일까? 그런데 양생은 앞서 그녀가 인간이 아닐 가능성을 떠올렸을 때도 질문을 유보했다. 이는 그녀가 귀신이어도 무방했기에 그랬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귀신임을 받아들이면 귀신과의 관계가 지니는 유한함 즉 곧 이별할 가능성 역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랐던 양생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즉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모른 척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에 이생처럼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보이지 않은 채 그녀의 요구에 응했을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자 그녀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의 발현으로 읽힌다. 양생이 그녀가 귀신임을 알게 되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울음과 통곡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장례가 끝난 후이다.

자로 했어야 이미 소멸된 존재와의 사랑을 지키는 남자와 균형이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작품은 여자의 천도에 대한 남자의 어떤 반응도 언급하지 않고 짝 닫힌 결말로 끝이 난다. 남자는 그후 다시 결혼하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면서 이야기는 ‘부지소종(不知所終)’으로 끝을 맺는다.

남자로 환생했다는 그녀의 감사 인사는 독자에게도 기대 밖의 전언일 수 있다.<sup>17)</sup> 하지만 서술자는 이 부분에서 남자에 대해 별다른 서술 없이 그 후 그는 다시 결혼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후일담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결말은 그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단절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의 한 번의 사랑이 그의 남은 생애에 온기가 될 만큼 충분했다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랑에서 남자는 마지막까지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간직한 건 아닐까? 그녀에 대한 남자의 태도는 시종일관 여일하다. 단 한번으로 충분한 사랑 그러나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할 이질적 존재와의 사랑이었기에 남자는 자신만의 사랑을 간직한 채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sup>18)</sup>

17) 여자가 타국에서 남자로 환생했다는 설정에 대해서는 안창수 (2015), 강혜진 (2020) 등 기존 논의에서도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독자로서의 소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백민정은 이 설정에 대해 ‘이미 타국에서 다른 남자로 환생해버렸다는 여인은 양생이 떠난 그녀를 기다릴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려지고 있다’고 했다. ‘환생해버렸다’든지 ‘잔인하게’ 등과 같은 표현에서는 연구자 이전에 일차적 독자로서의 반응이 감지된다. 이 대목에 대해 유독 자세한 분석을 하는 것 역시 이 설정을 의미있게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현대 독자 이기는 하나 <만복사저포기>에서 이 부분은 독자 반응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백민정 (2007),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55, 221쪽.

18) 이는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 홍생은 기씨녀와 하룻밤 동안 시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친구들이 어젯밤 어디 갔었는지를 묻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홍생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기에 지난밤의 사건을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한 것으로 보인다. <취유부벽정기> 홍생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윤채근 (1998), 「<금오신화>의 미적 원리와 반성적 주체」, 『고전문학연구』, 14, 152쪽.

#### 4. 삽입시

〈만복사저포기〉에는 양생과 그녀의 시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삽입시가 등장하는데 본고에서는 개녕동 친구들이 돌아가며 읊은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들의 시는 남자와 그녀가 맺은 관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처음 본 남자를 따라가 사랑을 나누었고, 능숙한 태도로 여종에게 조출한 술자리를 마련하게 했으며, 이미 인연이 되었으니 함께 손을 잡고 가도 되겠냐며 남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물론 그녀는 작품 곳곳에서 부모에게 고하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은 아내의 도리로 양생을 만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확인을 통해 결혼한 관계로 인정받는 것은 개녕동 친구들의 시를 통해서이다.

개녕동에서의 사흘 후 그녀는 남자와 헤어지기 전에 정씨, 오씨, 김씨, 유씨 이렇게 네 명의 이웃을 초대하였고 그녀들은 이별의 정표로 각자 4편씩 칠언절구 연작시를 지어 준다.<sup>19)</sup> 첫 번째 정씨의 시 내용은 ‘근심에 잠겨 보낸 봄날 몇 해나 되었는지 아득하다’고 하며 비익조처럼 짝을 이루지 못했음을 슬퍼한다. ‘슬픔에 찬 나의 무덤엔 오는 이 없’고 ‘정원 가득 내리는 비는 배꽃만 때리고 있’다면서 그녀의 시는 자신은 언제나 남을 만날 수 있을지 묻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첫 번 연작시는 무덤 속에서 남을 그리는 슬픔의 정조로 가득하다. 아리따웠지만 연약해보이는 오씨가 감흥을 못 이겨 그 다음을 이었다. ‘깊은 골짜기엔 봄 깊어도 나비 오지 않’는데 ‘이웃에서 깨진 구리거울 다시 합한다니 문득 기뻐’ 한다. 지인의 연애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나 자신을 돌아보니 ‘박명한 청춘에 눈물만 고인다’로 이어져 짝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눈물짓는다. ‘몸가짐이 반듯하고 의젓한’ 세 번째 여성 김씨는 앞의 시들이 ‘몹시 음란하다’며 꾸

19) 이별 모임에 초대된 네 명 여성의 연작시는 〈만복사저포기〉, 15~20쪽. 본고는 이 여성들의 시를 내용 중심으로 읽어 보고자 한다.

짓고 ‘오늘 일은 있는 그대로의 광경만’을 간결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묵은 회포를 늘어놓아 절개를 잃고 인간 세상에 그런 하찮은 마음이 알려지게 하는지 마뜩해 하지 않는다. 그녀는 시에서 ‘다시는 옥피리 붙어 희롱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 찾는 마음 세상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다. 그러나 다음 수에서는 ‘금 술잔 한 잔 가득 채워드리니’ ‘사양하지 마시라’고 하였고, 그 다음 수에서는 자신도 ‘싫도록 마시리라’고 했으며 마지막 수에서는 ‘구름 같던 머리 흙먼지에 더럽힌’ 게 몇 해나 되었다며 ‘고당에서 선녀 만난 일 자랑하지 말라 풍류 이야기 인간 세상에 알려질라’ 당부한다. 앞의 시들을 단속했지만 남의 시선에 노출될까 걱정되어서였지 그녀 역시 남자와 그녀의 만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담박한 화장에 수수한 차림의 유씨가 조용히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이 자리의 칠언시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1,2수에서 황천에 깊이 묻혀 몇 해 동안 절개를 지키며 평생토록 더러운 것 묻히지 않았다고 노래하다가 3수에서 ‘화장도 귀찮고 머리는 쑥대 같고 경대에는 먼지 쌓이고 거울은 녹’슨 상태로 지내다 ‘오늘 아침 다행히 이웃 잔치에 참석’했다며 심경을 드러낸 후 4수에 이르러 ‘하늘이 정해 준 인연’, ‘월하노인’ 등을 언급하며 서로 ‘양홍과 맹광같이 대하라’로 마무리한다.

이 유씨의 시에 그녀가 반응하는데 그 이유는 유씨의 시에 이르러 남자와 그녀의 관계가 ‘하늘이 맺어준 부부의 인연, 양홍과 맹광 같은 바람직한 부부상’ 등의 혼례를 치른 부부 인연으로 불리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무리 자신은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라 했어도 부모에게 고하지 않은 남녀의 만남이라는 사실, 밤이슬에 젖으며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일 등 유교적 예법에 어긋나는 점들에 대해 늘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타인이 자신들의 관계를 정식 부부의 인연으로 그 성격을 확인시켜 준 셈이니 유씨의 시는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던 셈이다.

그러던 위 네 명의 여성이 지은 시들은 실은 어쩌면 결국 그녀의 여러 가지 심정을 네 명의 목소리로 읊어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무덤 속에서님을 그리는 슬픔, 박명한 청춘에 대한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

지만 남이 알까 경계하는 마음은 실은 그녀의 마음속 정황이며 자신의 만남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 역시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었다. '귀하고 높은 집안'의 처녀들로 개녕동에 묻힌 네 명의 여성은 그녀에 다름 아니다.

〈만복사저포기〉의 개녕동 이별 모임에는 28수의 칠언절구가 전문 삽입되어 있어 약간은 장황한 삽입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사건 서술에서는 남자가 그녀 혹은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따라갔다면 28수 시의 삽입 장면에서는 그녀의 생각과 심경이 어떠한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이 시들은 자칫 자유분방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녀의 행동 저변에 깔린 섬세한 마음의 향방을 독자들과 공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5. 봄밤이라는 배경

〈만복사저포기〉는 시작 장면에서 방 밖 배나무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그 나무는 '이제 막 봄을 맞아 꽃이 활짝 피어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을 쌓아놓은 것처럼 환했다'. 꽃이 만발한 배나무에 대한 묘사가 화사하다. 남자 주인공은 봄날의 달밤이면 늘 그 나무 아래에서 시를 읊조리곤 했는데, 그 시는 적막함과 짙한 외로움과 자신의 인연에 대해 바독으로 점쳐 보고, 또 등불로도 점쳐 보면서 근심에 잠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하늘의 목소리가 응답을 해 왔고 그날 남자는 자신처럼 외로움을 토로하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3월 23일 등불이 켜진 만복사에서 만나 하룻밤, 개녕동에서의 사흘 이렇게 도합 나흘을 같이 지내고 이별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밤은 부정적인 시간이 아니다. 봄과 밤의 시간은 결핍 속의 두 남녀가 만나 관계가 깊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세상에서 설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던 두 남녀는 봄밤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었다. 〈만복사저포기〉의 봄밤은 남자 주인공의 춘흥을 돋우고, 외로웠던 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배경인 동시에 두 인물에게 기쁨과 충족감을 경험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Ⅲ. <봄밤>: 애정전기 장르 관습에 비춰 읽기

#### 1. 등장인물

##### 1) 남녀 주인공

권여선의 <봄밤>을 보며 어떤 이는 레비나스를 토대로 사랑의 윤리의 진정성을 읽어내려 하는 시도도 있고<sup>20)</sup> 또 어떤 이는 남녀 주인공을 견뎌내는 인간형으로 파악하면서 결여로 교환되는 사랑을 읽어내기도 한다.<sup>21)</sup> 그런데 2013년 작품인 <봄밤>의 서사는 <만복사저포기>의 사랑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가능한 경우 권여선 <봄밤>을 애정전기의 장르 관습에 비추어 읽어보고자 한다.<sup>22)</sup>

이 작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증환자 수환과 증증 알콜중독자 영경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증증 환자에게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며 죽음을 예약해 놓고 있는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만난 지 12년 된 사이로, 각자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를 지니고 있다.<sup>23)</sup> 영경과 수환이 만난 건 12년 전 43세 되던 해 봄으로, 각자 친구의 재혼식에서였다. 조출한 재혼식을 마친 부부는 결혼식에 온 친구들을 집에 모아놓고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퍼마셨다. 그리고 수환이 술에 취한 영경을 업어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준 후 그들의 만남이 이어져 결혼 신고를 했고, 상태가 악화된 둘은 결국 증

20) 이연화 (2022),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봄밤' 연구」, 『문화와 융합』, 44(12), 343~349쪽.

21) 신형철 (2017), 「호모 파티엔스에게 바치는 경의」, 『안녕, 주정뱅이』, 창비, 258~264쪽.

22) 영화 <봄밤>의 서사도 소설 <봄밤>에 충실하게 전개되기에 영화에서의 등장인물 형상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 철공소를 했던 수환은 공장이 파산하자 부인이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여 그 말대로 했으나 그녀는 남은 재산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렸고 그 후 수환은 병든 몸을 치료할 돈도, 의료보험도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국어 교사였던 영경은 결혼 일년 반만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 후 전남편은 곧 재혼했고 영경은 백일 된 아들의 양육권을 얻은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전 시부모와 전남편이 아기를 잠시 데려갔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 그녀에게 이제 아들은 자기네가 기른다고 통보해 온다. 이 사건 이후 영경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게 되었다.

증환자와 노인들이 지내는 요양병원을 선택했다.

〈봄밤〉을 읽으면서 〈만복사저포기〉가 환기되었던 것은 바로 수환과 영경에게 임박한 죽음의 분위기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영경과 수환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봄밤〉은 이미 죽은 상태의 여자 주인공, 그녀의 무덤, 몸도, 존재도 없는데 이성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여자 주인공, 상대방의 정체를 굳이 캐묻지 않고 무모해 보이는 사랑을 시작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 〈만복사저포기〉의 사랑 이야기를 환기시킨다. 흔히들 결혼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봄밤〉이나 〈만복사저포기〉의 사랑은 설계할 아무것도 없음을 목도하면서 살아 있는 현재의 서로에게 집중하는 사랑이다.

수환은 주물 노동자 출신이고 영경은 과거에 국어 교사였다. 그러니 문사에 가까운 인물 형상은 영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영경도 문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수환과 영경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도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허위의식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교양을 갖춘 인물들이다. 이 같은 이타적 교양의 감각은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교양 있고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품위 있으며 동시에 고독하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파산에 신용 불량 상태이고 여자 주인공은 알콜 의존증으로 국어 교사에서 파면된 인물이다. 동시에 그들은 각자의 병으로 인해 수환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굳어가고 영경도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고 있다. 영경은 귀신은 아니나 그녀의 마른 몸과 회색빛에 가까운 낮빛은 숨만 붙어 있는 귀신 형국이다. 몸이 굳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수환 역시 사신(死神)이 임박해 있는 상태이다. 애정전기 소설의 인귀교환 모티프가 이별이 예정된 사랑을 암시하는 조건이라면 〈봄밤〉은 중증 환자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끝이 보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충분히 예감하면서 사랑한다. 수환과 영경 둘만 있을 때에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이자 활기 있는 애인이지만 둘 사이를 벗어나면 치료 불가능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

없는 환자들일 뿐이다. 사회적 타자들인 영경과 수환은 소외와 결핍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킨다.

## 2) 주변 인물

소설 〈봄밤〉에는 다수의 주변 인물들이 등장한다. 요양병원에 면회를 오는 이들로는 영경의 두 언니들과 수환의 늙은 어머니가 있다. 큰언니 영선은 영경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를 반복하는 한편 깊은 속마음에는 그녀가 남길 아파트가 관심의 대상이다. 늙은 수환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지가 마비되고 뒤틀리는 병에 걸린 것은 아들이 스무 살 때부터 ‘씻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슬퍼할 뿐이다. 이들의 등장은 가족이기는 하나 현재의 영경과 수환을 이해하지도, 별 도움이 되지도 못함을 보여준다.<sup>24)</sup>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지켜보는 인물은 요양병원의 간병인 종우이다. 그는 영경의 외박을 허락하고 애타게 기다리다가 혼자 죽어가는 수환 옆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키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종우는 죽어가는 수환을 위해 영경이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린다. 종우가 영경을 기다리는 수환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곁을 지키나 이는 그가 간병인이기 때문에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속한다. 종우는 수환과 영경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과거 여자친구를 이해해 보려고도 했지만 그는 영경을 보내주는 수환을 이해하지 못하며, 환자의 임종을 지키게 될까 두려움을 느낀다.

영화 〈봄밤〉은 소설 〈봄밤〉에 등장하는 영경의 두 언니와 수환의 어머니를 생략해 버리고 영경과 수환의 관계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다. 소설 〈봄밤〉에서 영경과 수환의 사랑은 그들의 대화와 그들에 대한 묘사, 주변인들의 시선에 대한 서술 등으로 서술되지만 영화 〈봄밤〉에서 영경과 수

24) 그리고 영경과 수환의 전 가족에 대한 서술도 있다. 영경과 수환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고 그들이 환자가 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으며 한때는 중산층의 삶을 꿈꾸기도 했을 영경과 수환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 영경의 전 남편과 수환의 전 부인은 등장하지 않고 과거 서술로만 설명된다.

환의 사랑은 언어보다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들의 몸짓을 통해 전달된다. 둘은 산책하고, 수환은 외박 나갔다 돌아오는 영경을 마중 나간다. 그러다 몸이 굳어져 휠체어를 의지하게 된 수환은 밤 늦도록 의자에 앉아 영경을 기다리고 드디어 영경이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몸을 날리고 기어가는 장면이 있다. 그 몸짓은 그가 영경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인상 깊게 보여준다.

영화에서 주목하게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다. 영경과 수환이 갔던 재혼식의 뒤풀이 술자리 장면으로, 이 장면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과거 인연들이 등장한다. 하객으로 왔던 각자의 지인들이 앉아 있는데 영화에서 그들은 대사 한 마디 없이 모두 상에 닿을 듯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정물처럼 앉아 있는 모습으로 연출된다. 어쩌면 다들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검은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삭막한 장례식 분위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어쩌면 무덤 같기도 하다. 이 장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은 영경과 수환뿐이다. 사회적 타자가 된 수환과 영경에게는 과거의 동창들이 오히려 정물이나 배경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복사저포기〉와는 달리 〈봄밤〉에는 남녀 주인공을 지지해 주는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 2. 애정의 전개

〈봄밤〉의 사랑이 인상적인 이유는 서로를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태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수환의 경우에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수환은 영경이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을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기꺼이 동의해 준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이 같은 방식을 견지한다. 이는 수환이 영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괜찮은 남자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한 선택이다. 수환은 구토, 불면, 경련, 섬망 등의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영경의 고통을 이해했다. 이런 그녀의 증상이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은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동창의 재혼식 술자리에서 수환은 회색빛 낮빛과 탄력 잃은 피부의 영경을 보며 자신이 노숙생활 할 때 본 여성 노숙자들의 얼굴을 연상했고, 취한 상태에서 그의 등에 업혀 집에 가던 영경은 ‘취한 와중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뭉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의아해한다.’<sup>25)</sup> 그후 둘은 매일 저녁 만났고 일주일만에 영경의 집으로 처소를 합했으며 결혼 신고를 했다. 수환의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떨어져 지냈지만 영경의 알콜 중독도 더 심각해져 둘은 같은 요양병원의 중증환자가 입원하는 병동에서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첫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본 후 이들의 관계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진행되었고 고통과 예고된 죽음의 한계 속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온 행운의 뭉을 충만하게 누렸다. 수환과 영경은 사회적으로 타자들이며 곧 소멸될 존재들인데 그러나 요양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사랑하며 충족적인 상태로 생을 나눈다. 이 둘의 요양병원은 <만복사저포기>의 남자와 여자가 충만하게 사흘을 보낸 개녕동 무덤과도 유사하다. 죽음을 예감하며 세상과 격리되었지만 그들은 그 공간에서 현재에 충실한 자신들의 사랑법을 만들어 갔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이 그녀가 귀신인 것을 문제 삼았다 해도 선택지는 그 사랑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양자였지 귀신의 상태를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봄밤>의 수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중증 알콜중독과 간경화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의 영경에게 치료 혹은 회복의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이 자신의 안위를 따져보지 않고 왜 그녀 귀신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만 하는지, 수환이 왜 영경에게 금주를 권하지 않고 음주를 허용해 주는지를 보면 사랑을 대하는 그 둘의 태도는 비슷해 보인다. 그녀를 보낸 후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린 양생과 영경을 보

25) <봄밤>, 28쪽. 재혼식 술자리에서 영경의 집으로 가는 장면은 수환과 영경이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봤음을 알려준다.

낸 후 기다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수환은 생을 다하여 사랑을 지킨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계산 없이 이타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황폐한 자신을 채우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3. 결말

권여선의 〈봄밤〉을 읽으면서 다수의 평자들이 상대방을 교정하거나 개선시키려 하지 않고 결과가 안 좋을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 언급한다. 배우자가 낯기를 바라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그가 치유되길 바라서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죽음이 가져올 상실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대개 사랑하는 이의 굳건함이 자신의 안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사랑과 결혼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획을 포함한다. 그런데 〈봄밤〉의 사랑에는 더 나은 미래란 없다. 그들은 그 관계를 통해 무엇도 교환하겠다는 생각 없이 자신의 분자를 늘려<sup>26)</sup>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를 원할 뿐이다. 현재가 제일 좋은 상태인 것이며 죽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 외출에서 정신을 잃은 영경은 앰블런스에 실려 이미 수환이 죽고 없는 요양병원으로 돌아온다. 기억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영경은 수환도 기억 못하지만 뭔가가 빠져나간 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괜히 요양병원의 방들을 열어보며 다닌다.

그녀가 사라진 후 양생이 지리산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수환은 죽었고 영경은 요양병원에서 공허를 견뎌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랑 이야기이다.

### 4. 삽입시

전기소설에서 한시문은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삽입되는 요소이지만 현대소설에서는 시의 삽입이 전기소설만큼

26) 분자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권여선이 작품에서 톨스토이의 〈부활〉을 인용한 부분에서 따온 표현이다. 〈봄밤〉, 24~25쪽.

비중 있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현대소설도 다양한 장르에 열려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사 속에 시문을 효과적으로 삽입하곤 한다. <봄밤>의 경우는 삽입시가 매우 중요하다. 김시습이 자신이 창작한 시로 삽입시를 삼았다면 권여선은 김수영의 시 <봄밤>을 인용하고 있다.<sup>27)</sup> 이 작품에서 시는 영경이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서 마시면서 혹은 모텔로 향하면서 김수영의 <봄밤>의 시구를 읊조리는 방식으로 삽입된다.

영경은 컵라면과 소주 한 병을 더 샀다.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그녀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서두르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영경은 작게 읊조렸다.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 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영경은 자신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 [...] 영경은 컵라면과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과자 한 봉지와 페트 소주와 생수를 사가지고 편의점을 나왔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영경은 큰소리로 외치며 걸었다.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영경은 작은 모텔 입구에 멈춰 섰다.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오 나의 영감이여! 갑자기 수환이 보고 싶었다.<sup>28)</sup>

<봄밤>은 그 시 전문을 독립적으로 인용하는 대신 영경의 행동 중간중간에 끊어 배치하고 있다. 처음에 서두르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이르는 문장을 읽으면서 천천히 마시자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바로 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등불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는 명령조의 문장이 이어지면서부터 영경의 읊조림과 되뇌는 술주정이 아니라 영경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다짐 같은 것으로 읽힌다. 편의점을 나온 후의 읊조림에는 느낌표가 붙는다. 김수영의 <봄

27) 1957년 작인 김수영의 <봄밤>은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봄밤이 주는 아름다운 정서, 피곤하고 고단한 이들을 환대하는 주체의 태도가 나타난 것으로 읽기도 한다. 이연화 (2022), 342쪽.

28) <봄밤>, 33쪽.

밤)을 그대로 외울 만큼 그녀 정신의 한 부분은 명료한데 느낌표가 찍힌 걸 보면 술에 취해 강약 조절이 여의치 않은 발음이 느껴진다. 그렇게 자신에게 삶에 대해 서둘지 말라고 되뇌다가 모텔 앞에 멈춰 선 영경은 시의 중간 부분은 생략한 채 갑자기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읊는다. 절제, 나의 귀여운 아들 그리고 영감. 아들과 영감은 영경에게 매우 취약하면서 치명적인 단어들이다. ‘나의 영감’에서 발음 상의 유사함으로 수환을 떠올리는 부분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연상 작용은 그녀 의식의 자락을 수환, 즉 섬망 증상을 보이는 영경이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도록 만드는 대상으로 옮겨 놓는다. 김수영의 〈봄밤〉은 작품의 시간 배경인 ‘봄밤’과 맞물리면서 영경이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애쓰며 분투하는 내면을 보여준다.

김수영의 〈봄밤〉이 삽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영화에서는 그 분량과 효과가 다르다. 소설은 부분적으로 시를 인용하는데 비해 영화에서는 시의 내용이 더 길게 인용된다. 또 영화에서는 영경 역의 한예리 배우가 ‘서둘지 말라’는 시어를 반복해서 읊조리고 시의 뒷부분을 읊을 때는 점점 멍개지는 듯 발음한다. 소설에서는 김수영의 〈봄밤〉 시구를 읽을 때 영경의 목소리임이 강조되기보다는 소설 〈봄밤〉과 어우러지는 시 〈봄밤〉의 아름다움이 감상적으로 다가온다면 영화 〈봄밤〉에서의 시 인용 장면은 이것이 술에 만취한 영경의 읊조림으로, 인물의 행동과 목소리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 취한 정신 상태에서도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하는 영경의 간절함이 술주정에 섞여 전달되는 듯하다.

## 5. 봄밤이라는 배경

〈봄밤〉에서 봄밤은 수환이 술에 취한 영경을 업어 집에 데려다준 첫 만남의 시간이며 영경이 목놓아 우는 장면의 시간대이기도 하다. 수환도 봄에 숨을 거둔다. 소설 〈봄밤〉의 봄밤은 풍광이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게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소설 〈봄밤〉의 봄밤 이미지는 생명력이나 따뜻함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봄밤 장면

은 이미 취한 영경이 과자 한 봉지와 페트 소주와 생수를 사 들고 나온 다음에 서술된다.

그 아이가 살아 있다면, 하고 생각하다 영경은 고개를 흔들었다. 촛불 모양의 흰 봉오리를 매단 목련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소리 내어 울었다. 울면서도 자신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 장애 때문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29)</sup>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한 그녀는 한 차례 술을 마신 후 다시 술을 챙겨 편의점을 나오는데 이미 취한 상태에서 김수영의 <봄밤>을 부분 부분 되뇌며 걷다가 흰 봉오리가 달린 목련 나무 아래에서 소리내어 운다. 이 장면이 바로 봄밤이다. 소설에서는 이 장면에서 영경이 자신의 울음이 감정 조절 장애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전달된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훨씬 압도적으로 연출된다. 영화에서 이 장면이 인상적인 것은 시각적인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영화에서도 영경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동선으로 목련나무 앞에 서게 된다. 흰 촛(燭) 같은 봉오리들이 아름답게 달린 키 큰 목련나무들이 클로즈 업되며 영경의 상대역인 듯 서 있고, 영경은 그 나무들을 우러르며 마주하고 있다. 막 피어오르기 직전의 목련 봉오리들을 보면서 영경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고 서럽게 운다. 영화에서는 별다른 나레이션 없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경의 감정 조절 장애에 대한 정보는 생략된다. 술에 만취한 영경이 문득 속절없이 아름다운 목련꽃을 마주한 순간, 생동하며 순전하게 피어오르는 봄밤의 에너지에 자신의 현 처지가 강렬하게 환기되면서 울음이 터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의사의 진단대로 감정 조절 장애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정의 발로로서의 눈물로 보인다.<sup>30)</sup> 수환은 죽어가고 있고

29) <봄밤>, 33쪽.

30) 영경은 병으로 인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 서술된 영경이 흘리는 눈물은 합당한 감정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봄밤의 목련나무 장면 외에 영경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그녀가 수환의 손을 볼 때였다. 한 번은 그녀가 '제멋대로 자란 관목처럼 굽고 흰 그의 손가락' 위로 눈물을 후두둑 흘리는데 이때도 그녀는 자신의 눈

자신은 금단 증상을 못 이겨 그런 수환을 두고 나와 있으며 아이도 잃었고 수환도 잃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처절한 반응인 것이다. 봄밤에 영경은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며, 이후 더 마셨을 술로 인해 결국 정신을 놓고 만다.

#### IV. 결론

〈만복사저포기〉와 같이 인귀교환 모티프를 지닌 애정전기는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기에 비극적 사랑으로 간주한다. 〈봄밤〉 역시 가진 것 없는 남녀의 끝이 보이는 사랑이기에 선뜻 긍정하기 어려운 사랑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을 서로 참조하며 읽은 결과, 이 두 이야기는 오히려 현재에 충실한 적극적인 사랑 이야기이며 서로에게 충분히 충족적이고 고양된 상태로 결속된 남녀의 이야기로 읽힌다.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교환을 상정한 관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은 가치의 교환을 전제로 하며, 이는 중매혼을 전제로 하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낭만적 사랑이란 허구이다. 그런데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여자의 부모에게서 받은 재물을 그녀를 위해 그냥 고스란히 다 쓰고, 〈봄밤〉의 영경은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수환과 나눈다. 이런 점에서 양생과 그녀, 영경과 수환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균형 있게 교환하는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서로 대상에게 필요한 물질과 감정을 주며, 대상에게 자신의 필요를 우회적으로 권면하지 않고, 스스로 대상이 원하는 긍정적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물을 감정 조절을 못한 결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수환의 병세를 보면서 흘러게 된, 제대로 된 감정의 분출로 보인다. 수환 앞이어서 민망한 마음에 그렇게 둘러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랑은 어쩌면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일 수 있겠다.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의 사랑 이야기는 이상적이지만 그런 이상적 사랑을 둘러싼 분위기는 뜻밖에 귀신이나 죽음 등 남들은 피하고자 하는 공포를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나 현대나 교환 가치를 넘어서는 사랑의 서사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극단적 결핍 상황에 처한 두 작품의 남녀는 교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드문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작품들이 슬픔의 정서를 남긴다면 그것은 그들의 처지나 그들이 나는 사랑이 비극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형태가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실천인 까닭에 희소한 아름다움을 목도했을 때의 감정적 반응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수용하며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만복사저포기>나 <봄밤>의 사랑 이야기에는 울림이 있다.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이 교묘하게 닮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두 작품에서 그리는 사랑에 대한 태도가 서로 통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을 서로 참조하며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는 <만복사저포기>의 서사가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프리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의 사랑 이야기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물론 작가 연구나 역사적 배경 연구가 작품의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작가나 역사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 서사만으로 충분히 읽힐 수도 있으며 그렇게 읽힐 수 있을 때 그 작품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더 널리 수용되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을 보면서 사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인간의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상통하는 바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죽음과 유한함을 인지하면서 ‘지금-여기’에 충실한 사랑 이야기인 <만복사저포기>와 <봄밤>은 두 작품을 서로 참조하며 읽을 때 현실에서는 목도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랑의 서사가 더 깊고 충분하게 살아난다.

## 참고문헌

- 김시습 (2012), 「만복사저포기」, 김경미(역), 『금오신화』, 펭귄클래식 코리아.
- 권여선 (2017), 「봄밤」, 『안녕, 주정뱅이』, 창비.
- 강혜진 (2020), 「저포가 ‘만든’ 불완전한 운명」, 『우리문학연구』, 66, 우리문화회.
- 박희병 (1997),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 백민정 (2007),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 신형철 (2017), 「호모 파티엔스에게 바치는 경의」, 『안녕, 주정뱅이』, 창비.
- 안창수 (2015),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애정의 의미와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 윤채근 (1998), 「〈금오신화〉의 미적 원리와 반성적 주체」, 『고전문학연구』, 14, 한국고전문학회.
- 이연화 (2022),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봄밤’ 연구」, 『문화와 융합』, 44(12), 한국문화융합학회.
- 영화 〈봄밤〉(감독 강미자, 주연 한예리, 김설진, 2025년 7월 9일 개봉).

## Abstract

### Comparative reading of 〈Manboksajeopogi〉 and 〈Spring Night〉

Cho, Hae Ra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This paper contrasts Kim Si-seup(金時習)'s 15th-century work 〈Manboksa Jeopogi(萬福寺樗蒲記)〉 with Kwon Yeo-seon's 21st-century work 〈Spring Night(봄밤)〉 to examine the nature of love portrayed in these two works. The film 〈Spring Night〉 was also referenced when necessary. The love stories in both works are dynamic love stories where a man and a woman enjoy each other's fulfillment and joy, while at the same time showing an attitude of faithfulness to the present. The subtle similarities between 〈Manboksa Jeopogi〉 and 〈Spring Night〉 seem to stem from the shared attitudes toward love portrayed in both works. Another insight from this comparative reading is that the narrative of 〈Manboksa Jeopogi〉 can be interpreted as a love story without the prism of the author's biographical details or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Gyeyujeongnan(癸酉靖難).

Keywords: 〈Manboksa Jeopogi(萬福寺樗蒲記)〉, novel 〈Spring Night(봄밤)〉, film 〈Spring Night〉, others, alienation, love, death, ghosts, media

논문 투고일: 2025년 10월 13일

심사 완료일: 2025년 10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0월 21일